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Economy:  
co-creation of paths for a green and inclusive economy**

**GSEF Global Virtual Forum  
4-8 October 2020**

**Report format**

<b>Title of the session:</b>	Youth & SSE Session - Role of Future Generations to Build a Sustainable Impact Ecosystem
<b>Type of session</b>	Self-Organised Session
<b>Language:</b>	Korean, English
<b>Date:</b>	Friday, October 8, 2021
<b>Time:</b>	15:30 ~ 17:30
<b>Participants</b>	Dong-Ryul Kang(SDSN Korea), Yoon Seo Jeon(LIFEIN), Margaret Kamau(SDSN Youth Kenya, Regional Coordinator), Rahyang Nusantara(GIDKP, National Coordinator), Dain Won(YLPP Korea), Chan-Ho Kim(YSDA Korea), Eric Lee(FUNCOMPANY), Ji-Eun Kim(SDSN Youth Korea)

**Name of moderator**

Dong-Ryul Kang(SDSN Korea)  
Ji-Eun Kim(SDSN Youth Korea)

**Speakers**

Yoon Seo Jeon(LIFEIN)  
Margaret Kamau(SDSN Youth Kenya, Regional Coordinator)  
Rahyang Nusantara(GIDKP, National Coordinator)  
Dain Won(YLPP Korea)  
Chan-Ho Kim(YSDA Korea)  
Eric Lee(FUNCOMPANY)



## Summary of presentations:

### ■ Presentations

#### ● Yoon Seo Jeon(LIFEIN): 청년 혁신가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사회적경제 미디어' 라이프인은 2021년 '소셜 솔루션 미디어'로 개편하며 사회혁신, 기후위기, 지역, 청년 문제 등 우리 사회에 솔루션이 필요한 4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함.

- 이 과정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구색 맞추기 식으로 다루어 오지 않았나?'라는 의제 발견. 혁신의 주체로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청년 기획 'M 너하시는 지요'(뭐하시는지요) 연재 시작.

-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은 적음. 라이프인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만들어 가는 이들을 청년 혁신가라고 정의.

- 청년 기획을 바탕으로 하여 UN 세계 청년의 날(8.12)에 GESF와 함께 청년 문제와 관련한 웨비나 기획. 웨비나를 통해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천적 해결방안을 논의.

-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공유하고 문제의식은 지속가능한 삶일 것. 라이프인은 언론으로서 청년들의 문제를 보고 듣고 전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 혁신가들과 협력하고 관계 맺으며 플랫폼 역할을 할 것.

#### ● Margaret Kamau(SDSN Youth Kenya):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공 정책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청년 참여

- 청년은 에너지와 창의력을 가진 사회적 자원. 특히 청년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청년들은 '의제 2030'(Agenda 2030)의 수혜자가 아니라, 개발자이자 적극적인 참여자. 또한 청년들은 역동적인 혁신의 원천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 시스템의 변화에 기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옴.

- 공공정책은 정부기관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가이드. 공공정책 수립은 다양한 공공문제에 영향을 받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하는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 청년들도 공공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파악하고 수립 과정에 참여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사회적경제란 사람의 필요에 답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 집단적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공통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해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 활용.

-청년들이 공공정책과 사회적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낮은 정보 접근성, 실업, 교육 기회의 부재,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동등한 의결권 보장 필요), 범죄와 폭력에의 노출,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의 이유 때문.

-향후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취약성을 경제적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포용되도록 하는 것. 우호적인 세금 정책, 비즈니스 클럽 운영 등을 통한 청년 창업 독려,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전략, 청년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위한 정책 등이 필요.

-이에 따라 SDSN Youth Kenya 는 국가·지역 차원의 기존 청년위원회를 개혁하거나 필요에 따라 새로 만들 것, 교육을 제공해 청년들이 국가·청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공공정책 참여를 독려할 것 등을 권고.

● **Rahyang Nusantara(GIDKP): 탄소중립을 위한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용기 내기 챌린지**

-GIDKP 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고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을 사용하자는 것을 목표로 2010 년도 시작.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제안. 2016 년도 23 개 지역에서 '유료 플라스틱 봉지 운동'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

-GIDKP 는 사업 실행에 있어 애드보커시(Advocacy), 협력, 교육 등 3 가지 접근법 사용.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지하고, 이러한 애드보커시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 및 업체들과 협력하며,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Z세대 대상 교육 활동을 진행해 학생들이 직접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2030 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15 개 도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통과 등의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냄.

-GIDKP 는 지방정부를 비롯해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 지난해 자카르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친환경 쇼핑백 사용을 의무화. 이를 통해 가구당 플라스틱 사용량 42% 감소. 발리의 경우 일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빨대·스트로폼 사용을 제한하여 일회용 비닐봉지 57%, 플라스틱 빨대 81%, 스티로폼 70% 감소.



-GIDKP 는 대중 캠페인, 26 개의 지방정부와 워크숍, 학계 연구 및 실행 과정 모니터링 지원, 전통시장에서 비닐봉지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 청년 주도 시위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에 노력해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사용하고, 더 큰 효과를 내고 시스템을 바꾸길 원한다면 지방정부에 목소리를 내야 하며, 작은 행동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

**Main question**

1. 각 단체가 생각하는 현재 청년 사회가 가진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2. 지속가능한 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비전과 로드맵은 무엇인가?
3. 각 단체는 청년들과 어떻게 협업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단체의 활동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Answers to the MAIN QUESTION:**

- 각 단체가 생각하는 현재 청년 사회가 가진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1. Full name: Dain Won  
Organizational affiliation: YLPF Korea  
Country of Participation: Korea  
Answer: 가장 큰 문제는 청년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다. 각 법령마다 청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다 보니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 발언하기가 어렵다. 청년이라는 규정의 규모가 큰 탓에 청년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끈끈한 연대감을 갖추기도 어렵다. YLPF Korea 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정책연구와 정책제언 활동을 하고 있다.
  2. Full name: Chan-Ho Kim  
Organizational affiliation: YSDA Korea  
Country of Participation: Korea  
Answer: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서로 다른 입장의 청년세대들이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통의제로서 청년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고안했다. 또,





한국의 경우 청년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해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국 청년들, 한국 청년사회와 국제사회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한국 청년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으며 지역 청년 활동가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상했다.

3. Full name: Eric Lee

Organizational affiliation: FUNCOMPANY

Country of Participation: Korea

Answer: 현재 청년세대는 무기력증과 싸우고 있다. 청년세대의 무기력증을 극복할 방법을 고민했고 팀 창업이라는 솔루션을 찾았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대기업, 공기업 내지 공무원이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글로벌 수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세대다. 안정적인 길만 찾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힘의 총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 개개인이 생태계 일원으로서 문제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비전과 로드맵은 무엇인가?**

1. Full name: Eric Lee

Organizational affiliation: FUNCOMPANY

Country of Participation: Korea

Answer: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은 지속가능한 청년 생태계에서 핵심적으로 갖춰져야 할 능력이다. 이런 능력들을 길러내는 방법의 핵심은 실제로 해보는 것이다. 청년들이 직접 자원을 동원하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향성을 맞추어야 한다. 직접적인 지원은 '온실 속의 화초'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실 밖에서 청년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2. Full name: Chan-Ho Kim

Organizational affiliation: YSDA Korea

Country of Participation: Korea



Answer: 한국 청년의 지속가능발전, 다른 한편로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 세계평화까지 꿈꾸고 있다. 이러한 비전 속에서 청년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었다. 각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로 모이고, 각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이행전략이다. 그렇게 해서 청년 활동가들이 함께할 수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각 순간마다 마주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삶의 양식을 만드는 것이 청년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화들이 각 지역마다 만들어진다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가 되는 것이 청년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일 것이다. 2030 년 전후로 새로운 국제사회 목표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이행전략이 필요할 때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잇는 선순환체계가 생기고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3. Full name: Dain Won

Organizational affiliation: YLPF Korea

Country of Participation: Korea

Answer: 지속가능한 청년 생태계를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부합하는 목표가 만들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목소리가 입법권자들에게 전달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청년은 UN 이 선정한 주요 이해당사자다. 한국 청년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 때도 오픈 워킹그룹을 만들어 청년들이 이해당사자로 참여했다. 오픈 워킹그룹을 해산한 후에는 YLPF Korea, YSDA Korea 두 단체가 발족했고, 현재 대선후보자들에게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청년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심점으로 SDG Youth Committee 라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 매 학기 총회(General assembly)를 진행하여 단체의 지속가능성이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홍콩 인권탄압이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과 같은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청년들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선언문을 통해 압박하고자 한다.

● 각 단체는 청년들과 어떻게 협업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단체의 활동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1. Full name: Dain Won

Organizational affiliation: YLPF Korea

Country of Participation: Korea

Answer: 청년들이 협력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10월에 한국 청년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논의된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하면, ESG를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이용, 청년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 청년들의 노동가치 평가 절하, 코로나 19로 인한 물리적 단절로 청년 세대 간 교류 어려움 등이 당면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11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청년들을 이해당사자로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면 각 단체들과의 협업과 동참을 넘어, 협업과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Full name: Eric Lee

Organizational affiliation: FUNCOMPANY

Country of Participation: Korea

Answer: 우리 사업 중 청년과 로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청년 인구가 로컬에서 사라지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이 문제일 텐데, 로컬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팀 창업 모델을 개발하여 프로토타입을 6개월 정도 시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협업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3. Full name: Chan-Ho Kim

Organizational affiliation: YSDA Korea

Country of Participation: Korea

Answer: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인 관점과 단체의 관점, 연합의 관점으로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활동가들이 먼저 모여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의제가 있어야 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둘 중 가능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활동가들이 많은 지역이라면 먼저 모인 다음 함께 의제를 찾을 수도 있고, 당면한 의제가 있다면 그 의제를 통해 활동가들이 모일 수도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건강, 배움 등 본인의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Relevant Questions and Answers from Audience:**

- **Question:** 청년 문제가 특정 의제를 넘어 여러 사회문제를 포괄할 경우, 어떻게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Answer:** 청년 문제는 항상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행동한다면 좋을 것 같다. 콜렉티브 임팩트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문제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Yoon Seo Jeon, LIFEIN)
  
- **Question:** 청년세대가 겪는 무기력증과 비전문성의 문제를 기업가정신과 팀워크로 이겨낸다는 해결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을까?  
**Answer:** 팀과 앙트프러너십이라는 키워드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키워드를 '주체성'에 맞췄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단계적으로 기획해보고 있고,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주체성이 길러질 것이다. 이를 통해 무기력을 극복하고 경험의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해나가고 있다.(Eric Lee, FUNCOMPANY)

**Add summary or conclusion of the moderator at the end of the session in case there was no closing remarks per presenter/speaker**

**Screenshots of the zoom session**  
 (preferably gallery view with all the participants, so please take a minute before closing the session to ask all the participants to turn on their videos and take a group photo. This can be also used for the video recording later.)